

### 대통령선거 D-90

#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 9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회

####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방송 출연 제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폰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시작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전북선거관리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가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행안부 특교세 확보

#### 김윤덕 의원, 14억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 ▲완산구 평화2공원 정비사업 4억원, ▲평화2동 농수로 안개 복개 3억원, ▲중화산로 일일 인도장비 4억원, ▲춘향로(한백교~승안교) 경관개선 3억원 등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체육 및 간단한 실외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보행로(산책로)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과 아름답게 조화되는 도심으로 탈바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오래된 체육시설 개선 요구가 높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 김수홍 의원, 18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갑)이 2021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해 시급한 재난안전 및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추진할 수 있게 된 사업은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시연장 건립(5억원), 성당면 삼삼마을 회전교차로 설치(3억원), 송학동 우수박스 정비사업(10억원)이다.

김수홍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가 각종 재난과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익산의 석제품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호상 기자

### ‘전주 사업 국비 예산 102억 확보’

#### 양경숙 의원, 전주야구장 리모델링·영화산업 허브 등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전주시 지역 사업 관련 국비 예산 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에는 전주시 주요 사업으로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예산 90억 원을 비롯한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을 위한 국비 5억 원, 그리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예산 7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경기장의 노후화 및 안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억원 중 국비 90억원을 확보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의 반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주시를 글로벌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 과 한

국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문화원형 전반기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 사업은 전주시가 서남권을 대표하는 영화영상 촬영거점도시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8.23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119억 원이 지원된다.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로 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33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국비 7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문화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문화 융복합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숙 의원은 “지방 소멸위기에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문화적 격차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전주시 예산 확보는 매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효과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방 균형발전 및 전주시를 문화·예술·관광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호상 기자

### 이원택 의원 ‘김제원예농협 밀 건조 지원선정 환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하는 ‘2022년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김제원예농협이 선정됐다.



이원택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국산 밀 생산단지 중심으로 추진하는 생산밀을 수집·건조·저장이 가능한 전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에 김제원예농협이 2022년 사업자로 선정돼 지원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 경쟁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김제원예농협은 사업 추진의지, 정책 부합성, 집행 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대상 선정으로 김제원예농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최

대 18억을 지원받아 건조·저장시설 신축, 집진시설 개보수, 저장용량 증·개축 등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대규모 생산·유통 거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게 됐다.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밀·콩 이모작을 통한 생산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해졌다”며 “주산지 생산단지 집중·대규모 통해 농가소득 확충 방안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특별교부세 41억원이 김제시(20억원)·부안군(21억원)에 최종 지원 확정돼 김제·부안의 다양한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김제시·부안군의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를 행안부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그결과 김제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김제 스마트 안전 통합방송시스템 고도화, 부안 해물미루 진입로 개설, 부안 주상절이 현정비 등 특별교부세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유호상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9'로

## “청년의 미래와 함께하는 전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디지털 실험기 등 육성  
생애 첫 이직수당 등  
전주시 청년정책 발표



전주시청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주시청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청년을 키우고, 청년의 미래와 함께하는 전주’로 진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청년의 창업·창직,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핵심으로, 정치·경제적 권리, 교육·문화적 참여를 보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정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담겼다.

7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느끼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 이들의 미래와 함께하는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특히, 청년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 초부터 ‘청년에게 배우다’, ‘전주 구석구석 누비기’, ‘모두의 경제포럼’ 등을 통해 만난 대학생, 청년기업인,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정책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최우선으로 했다.

조 전 원장은 “도시의 미래는 청년의 현주소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은 많지 않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전주청년’을 키우고 기회를 보장, 이들이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들의 미래 또한 함께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기반의 청년 디지털 실험기과 금융인재를 1만명 육성해 청년 중심의 혁신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디지털 실험기는 창업·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이카데미를 운영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술·생활·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100개의 혁신모델에 따른 전주형 신산업군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전문 인재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대비해 전주 중심의 금융도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어 생애 첫 이직수당을 지급하고 빈곤 청년의 근로인센티브 확대 및 보호 종료 청년의 주택·일자리·복지를 강화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출발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첫 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전 원장은 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높여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이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이자와 전세보증금보험료 80% 지원,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열악한 주거시설·환경 정비,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전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배움터

를 신속히 개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전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과 청년 자기개발시간 지원정책 시행, 청년 문화기본권 확대, 청년들의 마음·육체 건강 지원 프로젝트 추진 등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고자 전주시 위원회에 청년의 무합당제를 도입해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고, 청년 자율예산제를 시행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계획·실행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조 전 원장은 “청년들에게 무엇이든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그동안 많은 청년을 만났다. 전주에서 미래를 펼쳐가기에 불안하다는 청년들의 표정에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하지만 그 속에서도 도전하는 청년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봤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청년”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구상하고자 많은 공을 들였다고 “청년들의 미래가 곧 전주의 미래경쟁력인 만큼 이들이 당당히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윤상 기자

## “사회적경제, 위드코로나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일한  
두메산골·아귀 등 방문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6일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여섯 번째 일정으로 두메산골 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6일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여섯 번째 일정을 펼쳤다.

우 전 부지사는 이날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축산물로 노동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두메산골 영농조합법인’과 전통예술을 근간으로 활동해온 타악연희원 ‘아귀’ 등 사회적기업을 방문했다.

두메산골 영농조합(대표 유현주)은 닭, 오리 등 최상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유현주 두메산골 영농조합 대표는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 농림수산물품부가 주관하는 의식산업 글로벌 리더 과정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신학협력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부지사가 방문한 타악연희원 ‘아귀(대표 박종대)는 전통 타악을 바탕으로 세대를 초월하

는 타악연희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설립돼 전통 예술을 근간으로 현대를 아우르는 창작 작업을 하는 예술단체이다.

박종대 타악연희 아귀 대표는 “아귀는 전통적인 타악과 현대적인 타악의 특성을 잘 살려내며, 하나로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둔 공연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문화예술인들과 관객들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서학예술극장을 개관했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우 전 부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새로운 일상과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다”면서 “정부나 시장 한 쪽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때 찾아오는 공동체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지역경제를 어떻게 재장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결국 사회적경제가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호상 기자

### 송지용 도의회 의장, 크리스마스 쉼 증정·성금 전달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안주)은 7일 의장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임원 회장으로 부터 결핵 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쉼 50장을 증정받고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송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도민들께서 적극적으

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원 회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결핵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결핵을 퇴치하는 성금 모금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쉼 모금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목표액은 1억700만원이다./유호상 기자

